

24장. 녹슨 가마의 비유

잔치를 위한 준비처럼 가마를 걸고 준비하였다. 그러나 그 가마는 피가 있는 성읍, 곧 '녹슨 가마'였다. 따라서 거기에서 삶은 고기를 먹을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가마의 더러운 것을 없애려고 더 강력한 불을 피웠다. 그것은 심판의 불이고, 그들 가운데 있는 음란을 정결케 하려는 불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곧비하게 되어도 그들의 녹이 없어지지 않았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도 완고한 태도를 취하는 이스라엘을 그러한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다.

1. 녹슨 가마 (24:1-5)

포로로 잡혀온 지 9년 10월 10일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후 5년 그달 5일로부터 약 4년 반이 지난 때의 일이다. 주전 588년 1월 15일로 추정된다.²⁰⁾ 그 날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정확히 기록해 두라고 하셨다.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을 '핍근' 하였다고 하였는데, 달리 번역하면 포위하여 압박하기 시작하였다는 말이다.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도망 온 사람에게서 들었다(33:21-22).²¹⁾

여호와께서는 완고하고 반역한 집인 이스라엘에게 비유로 그들의 멸망을 선언하라고 하셨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둘러서 진을 치고 있는데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이 확실하게 멸망할 것을 선언하는 일이었다. 그 포위가 풀릴 일은 없고 그들이 모두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잔치를 열라고 하셨다. 가마를 걸고 물을 붓고 양떼에서 좋은 것을 골라서 잡고, 뼈를 발라서 좋은 부위만을 모아서 솥에 넣고 그 아래 나무를 잘 썰어서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잘 삶도록 하였다. 이제 솥에서 좋은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잔치를 열고서 그 음식을 즐길 수 있을 것이었다. 이 부분은 매우 경쾌하다. 아마 음식을 준비하면서 부르는 노래와 같다.

2. 저주의 선언 (24:6-8)

그런데 흥겹게 노래하던 것이 멈추고 “화 있을진저” 하면서 저주의 선언이 시작된다(6, 9절). 이러한 급격한 반전은 지금 가마솥에서 삶는 것은 잔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심판을 위한 것’임을 나타낸다.

잔치의 노래가 심판의 노래로 바뀌게 된 것은 가마 때문이다. 불순물과 녹이 있어서 그 가마로는 아무것도 요리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피를 흘린 성읍인 예루살렘은 그 안에서 아무런 좋은 것을 내어놓을 수 없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순서를 정할 필요가 없이 일일이 꺼내어야 하였다.

3. 여호와의 심판 (24:9-14)

고기를 다 꺼낸 후에는 솥을 정결케 하려고 나무를 많이 쌓고 가마를 달궈서 그 속의 더러운 것을 녹게 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소독과 정결함을 위한 심판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여도 그 더러움이 벗겨지지 않았다. 그들의 더러운 음란함 때문에, 또한 그들이 정결케 하려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를 쏟으시기 전에는 다시 정결케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고 나무로 공성대를 만들고 있는데, 그 공격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일을 후회함도 없이 이루시고, 그가 행한 행위대로 재판하실 것이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만, 그것은 멸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결케 하기 위함’이다.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13절)는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행하시는 목적이 표현되어 있다. 가마솥을 달구어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정결케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에스겔의

20) 크리스토퍼 라이트, 『에스겔 강해』, 295.

21)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은 대략 18개월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그 소식이 18개월 후에 에스겔에게 알려졌다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 연도에 대한 여러 논의는 D. Block, *Ezekiel 1-24*, 772-774 참조하시오.

아내의 죽음을 통하여 더 표현된다.

5. 선지자의 아내의 죽음과 예루살렘의 종말 (24:15-27)

1) 아내의 죽음 (24:15-24)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을 음녀로 비유하여서 간음한 여인에 대한 심판이 불가피함을 16장과 23장에서 분명히 표시하셨다. 가마술의 비유로 예루살렘이 철저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어서 그 심판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을 쳐서 빼앗는 것’으로 말씀하셨다.

예언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였는데, 여기에는 자기의 삶을 모두 포기하는 것도 포함된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자기 아내의 죽음을 그 예언의 활동에 넣어서 전해야 하였다.

예언자 에스겔이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자기 아내는 ‘자기 눈에 기뻐하는 것’이었다. ‘눈에 기뻐하는 것’ (마흐마드)이라는 표현은 사랑하는 대상을 표현하는 말로서(아 5:16; 호 9:16) 성전의 보물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을 3:5; 사 64:11). 입이 닫혀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집에만 갇혀 있을 때에 돕는 배필인 아내가 유일한 즐거움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치심’으로 사랑하는 보물을 에스겔에게서 빼앗아 가셨고, 에스겔에게는 슬퍼하여 울지 말라고 하셨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이었다.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나아왔다가 에스겔이 아내의 장례 절차를 치르지 않자 그 일의 의미를 물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성소가 그들의 영광이고 기쁨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더럽힐 것이고 그 멸망에 대하여 그들은 슬퍼하지도 못하고 죄악 중에 쇠퇴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만 할 것이라고 하셨다. 사람들이 일상적인 장례 예식으로 슬퍼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다. 20-23절에서는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한 것을 묘사하면서, 많은 주검 때문에 큰 슬픔에 빠질 것을 말하였다.

그 일을 당할 때에 더 큰 슬픔에 떨어지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기 때문이다. 아무도 위로할 수 없게 될 것이었다.

여호와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심판을 행하시면 그 때에야 사람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셨다. 슬퍼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엄하게 심판을 행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여호와이심을 알리신다고 하셨다.

2) 예루살렘의 종말 (24:25-27)

여호와께서는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거기에서 도피한 사람이 에스겔에게 올 것이고, 그 후에 그러면 에스겔의 입이 열려서 다시 예언 활동을 하리라고 말씀하셨다(24:25-27). 그렇게 하여서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셨다.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이 이 모든 일의 핵심인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에게서 사랑하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빼앗아 가심으로써 그것을 표징으로 삼았는데 사실은 이 일에서 여호와의 뜻을 나타내셨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필연적임을 간음하는 여인의 이야기로써 명백히 밝히셨는데, 멸망의 바로 직전에는 에스겔의 아내, 곧 그의 눈이 기뻐하는 아내의 죽음으로 표현하였다. 이것은 비록 간음한 이스라엘이지만 여호와께서는 가마술과 같은 철저한 심판의 과정을 통하여 정화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뜻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열국 중에서 더럽힌 거룩한 이름을 여호와께서는 정결케 하시고 그들에게 새 마음과 거룩한 신을 주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겔 36:23-28). 그리고 그러한 정신으로 충만한 거룩한 성전을 다시 지어가실 것이다(40-48장).

에스겔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죽음에 넘겨주셨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점이나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 가신다. 어린양의 혼인 잔치를 바라보면서 역사를 인도하는 것이다.

소명을 받은 사람은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자기의 생활과 말로써 전해야 한다. 에스겔이 먼저 전한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 곧 사랑하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서 맞본 것과 같은 고통이다. 에스겔은 심판과 회복을 단순히 입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몸으로 전하였고, 여호와의 거룩한 심정에 참여하면서 전하

였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을 전하는 사람은 이러한 심정으로 전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